

전남-경기도, F1등 국제대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도



전라남도도와 경기도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등 스포츠레저 국제대회 상호협력에 강화하고 전남산 친환경농산물의 경기지역 학교급식 공급 확대에도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사진 오른쪽 두 번째)는 지난 20일 경기도(김문수 도지사·사진 오른쪽) 초청으로 남양주시 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11 제17차 IFOAM 세계유기농대회 D-100일 기념식'에 참석해 전남-경기 상호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서 양 도지사는 전남도의 F1대회, 여수세계박람회, 국제농업

박람회, 순천국제제철원박람회 등과 경기도의 '국제보트쇼', 세계유기농대회 등이 세계적인 메가스포츠 이벤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상호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F1대회 지원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펼치고 공무원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남도는 경기국제보트쇼에 공무원과 관련업체 등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도가 개최하는 스포츠레저분야를 포함한 국제행사에도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김문수 도지사는 협약식을 마친 후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전남도 F1대회 이동 홍보관'을 방문해 F1티켓을 즉석 구매했다. 김 지사는 "F1대회는 전 세계인이 열광하는 모터스포츠 축제"로 국가위상을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경기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F1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도지사는 "경기도의 공식적인 협력 표명으로 F1대회의 전국화가 사실상 이뤄지게 될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F1대회는 블루오션 신산업으로 장래 2조원대의 시장 잠재력을 갖고 있는 국내 모터스포츠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남의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에 모터스포츠 마니아가 불려있다는 점을 감안, "경기도의 참가가 대회 성공 개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민의 적극적인 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양 도지사는 또 친환경농업 육성·발전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확대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학생수가 183만9천명으로 서울 127만4천명의 1.44배이며 2011년 585개교 48만4천명, 400억원 규모의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국내 친환경농산물 최대 소비처다.

이번 협약으로 전국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의 57%를 차지하는 전남 친환경농산물이 대규모 경기지역 각 학교에 납품될 예정이어서 경기지역 학생들의 건강은 물론 전남 농민들의 안정적 판로 확보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

박 지사는 "농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닌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생명산업으로 양 도가 유기농업 육성·발전에 힘을 합쳐 아시아를 넘어 세계 유기농 시장을 주도해나가자"고 강조했고 김문수 지사도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 전 분야의 협력을 약속했다.

(전남 정영근)

청남대, 대통령 역사문화관 준공 등 확대

이시종 지사,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체계적 조성



청남대 대통령 역사문화관 확장준공식에서 기념사하는 이시종 충북지사



장하진
관리소장

충북도 청원군 문의면에 자리 잡고 있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가 새롭게 단장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 대통령의 동상 건립과 함께 역대 대통령이 각국으로부터 선물 받은 은제 화병, 의장도 등 총 52종에 127점이 전시되는 대통령 역사문화관을 건립 준공하는 등 국내 최고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 됐다.

30억원의 국·도비를 투입 준공된 대통령 역사문화관 준공식에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 김형근 도의회 의장 등 관계기관 및 내외 귀빈과 주민 등 약 300여명이 참석 대통령 별장 청남대의 역사문화관 준공을 다같이 축하했다.

특히 이시종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향후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승용차 진입과 판매소 설치, 그리고 밤9시까지의 관람 시간연장, 대통령 테마 관광상품 개발, 친환경 관광 인프라 확충, 수상공연장조성, 대통령길 조성,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확충, 특화 추진 등의 대대적인 추진으로 세계적 대통령 테마 관광명소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충북 박희상)

새 얼굴

청주 라이온스 회장에 이운근 취임

“전 회원과 합심하여 도내 최고 클럽으로 육성할 터”



“L온 클럽의 현장과 윤리강령을 준수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겠다.”

지난 20일 청주 파비온컨벤션센터에서 있는 청주중앙라이온

스클럽회장이 취임에서 제 42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 운근(55)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5년부터 L온 회원으로

활기차게 봉사해나온 이운근 회장은 현재 청남고속관광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충북도 관광협회 임원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운근 L온회장은 클럽임원으로 21개 기구로 편성하여 정식 출범했다. 신임 이운근 회장은 전회회원의 우의를 돈독히 하여 각 클럽과의 유대 강화로 도내 최고의 L온스클럽으로 봉사하고 또 봉사하는 정신과 자세로 불우이웃을 돕고 도덕적 분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 나가겠다는 야심찬 각오를 밝혔다. (충북 박희상)

청원군 향우회에 구테타 발생

리더십 부재·부채 운운은 명백한 명예 훼손



‘이곳저곳 붙어 다니는 2중 성격자는 사회로부터 배신당하는 법이다.’

한동안 잠잠했던 재경 청원군 향우회가 어느 한 사람의 농간과 조작으로 다시 두 토막으로 쪼개질 것으로 보여 기대했던 재경 향우회원들과 충북 도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런 못된 작품을 만든 자를 꼭 색출하여 재경 충북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4월 이병도 전 회장으로 부터 이양 받은 윤석민(전 국회의원)재경 청원군 향우회장의 임기가 1년여가남아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지난 14일 서울 모처에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으로 하여금 김병일 현 서원학원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통합 회장으로 추대했다면서 이 사실을 지방 7개 언론사와 각 방송사에 통보하여 보도되고 있다.

이를 보는 사람들은 그동안 조용했던 향우회에 왜 또 불협화음이 일어났느냐며 고개를 흔들고 있다. 보도내용을 보면 윤석민 회장이 취임이후 군민회를 정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것이다.

특히 정기 총회를 개최하면서

충북협회 이필우 회장으로 부터 2,500만원을 지원받고도 화환대, 식대, 총회 선물대 등 1500여 만원의 부채를 군민회에 떠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윤회장이 리더십 부재로 충북협회 및 12개 시군민회 회장단으로부터 배척돼 왔으며 각종행사(충북협회 정기총회 및 회장단 회의등)에 철저히 배제되는 수모를 겪어 왔다는 게 배척 이유다.

이에 이병도 전 회장 중심 군민회는 문제가 지속되자 이전 회장과 조흥연 전 회장은 전격 회동했고, 이때 서로 (이병도, 조흥연) 화해한 후 군민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위원장 박동찬)를 발족 구성하여 이 자리에 청원군 향우회장은 김병일(청원출신)씨를 추대 발표하고 윤석민 회장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청원군민회가 실족

상태가 된 책임을 물어 윤석민 현 회장을 만장일치로 불신임 결의했다고 되어있다.

이에 대해 윤석민 현 회장은 취재기자와의 통화에서 본인(윤씨)을 회장으로 시켜 놓고 이제 와서 본인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조흥연 회장과 적대적으로 그동안 청원군 향우회가 양분상태로 지탄을 받아온 사람들이 서로 손잡고 구테타를 일으켜 조용했던 청원군민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청원향우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또 다시 양분상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회장은 재경 70만 회원과 도민들로부터 크게 분개를 사게하고 이에대해 빠른 시일내에 대의원 대회를 소집 이에 대한 대책과 인신공격 부적절한 비대위 구성 명예회손 등 그리고 원인무효가 처분 신청 법적 투쟁에 나서 이를 모의 주동한 인물들 밝혀 내고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박희상)

울진군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울진군다문화가족회(회장 이영중)는 지난 19일 울진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다문화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을 축하하고 다문화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화합을 도모하고자 울진군과 한수원울진원지력본부의 후원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역의 각계각층의 정성어린 협조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울진군 관내 다문

화가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주여성 새댁들의 “소녀시대 뿔”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시작으로 율라후프 돌리기, 자녀 100m달리기, 줄다리기, 족구, 축구 등 다채로운 체육경기가 펼쳐졌으며, 2부 행사에는 울진연주인협회의에서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오키나와 연주, 민요창, 통기타, 모듬북 공연 등으로 장기 자랑이 이어졌다.

베트남에서 시집은 안효진(뷰티음악단, 죽변면)씨는시아버지와함

께 출연하여 시아버지의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고추” 노래를 흥겹게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고, 엄마와 함께 출연한 자녀의 귀여운 춤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참석한 다문화가족들은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 땀을 흘리며 경기하고 열심히 응원하니 더할 수 없이 기쁘다며 즐거워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영중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회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걱정이 많았는데 다문화가족회 회원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힘이 되었고 오늘 행사에 많은 가족들이 참석해 주시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준비한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는 오늘 행사보다 더 알차고 즐거운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협회 충북도회-하남병원 진료 협약

대한건설협회충북도회(회장 김경배)와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남병원(원장 박종경)은 지난20일 건설현장의 산업 재해 및 건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가족의 건강검진 등에 관한 진료 협약을 체결했다.

역대 최장수 버스조합 전무로 정든 조합 떠나



충북버스운송사업조합심상호(68)전무가 27일 퇴직했다.

심상호 전 전무는 충북도청 교통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예퇴임(부이사관) 후 현 윤태한 이사장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3회 씩이나 연임하여 맡은바 임무를 수행해 나왔다.

윤태한 이사장은 그동안 노고

를 치하 하면서 떠나는 심상호 전무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공식중매에 있는 전무에는 아직까지 후임자의 물색은 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업계에서는 사내의 자체승진으로 하지 않을 까하는 여론도 나돌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충북 박희상)

청주상의 지식재산 센터 충북대 창업지원단과 협약

청주상공회의소(회장이태호) 충북지식재산센터와 충북대 창업 지원단장(김재연)은 지난 17일 충북대학교 학연 산 공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충북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육성을 위한 지식 재산권 창출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엔 이태호 회장을 대리하여 한명수 사무처장과 김재연 창업지원 단장이 협약식을 맺었

다. 한명수사무처장은이번의업무협약으로 지식재산센터내 전문컨설턴트들을 통해 창업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박희상)

